

더 크고 더 강해진 산업금융,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한다

- 역대 최대 규모 앵커출자 기반 제3기 '산업성장펀드(舊 산업기술혁신펀드)' 출범
- 1호 「M.AX 산업대전환 혁신펀드(6월, 5천억 목표)」, 지역·업종 펀드 순차 출시
- 산업부 R&D 우수기업 대상 7,000억원 규모 보증+대출 우대금융도 공급 예정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와 성장을 돕고, 산업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한 펀드 투자, 보증, 융자 등 다양한 산업금융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특히, 금번에 '산업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구)산업기술혁신펀드는 R&D 전담은행의 앵커출자를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추가 유치하여 M.AX*, 지역산업 성장엔진, 업종별 생태계 강화 등 주요 분야별 펀드를 조성, 금년 내에 속도감 있게 투자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제조 AI 전환

5.18(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산업성장펀드 출범식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에서는 제3기 산업성장펀드 출범 및 산업부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업, 벤처캐피탈, R&D 전문기관 등 참석자들과 산업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성장펀드 출범식 · 산업금융 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5.18(월) 14:00, 여의도 한국성장금융(SK증권빌딩)
- 참석자 : 정부(산업부장관), 금융기관, 기업, 벤처캐피탈, R&D 전문기관 등
 - 금융기관 :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한국성장금융
 - 기업 : AI·로보틱스 분야 기업대표(테슬로, 에프알티로보틱스, 인피닉, 인터엑스)
 - 벤처캐피탈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 인터베스트
 - R&D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① 투자: 1조원 이상 앵커출자를 바탕으로 제3기('26-'28) 산업성장펀드 출범

산업성장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R&D 전담은행의 앵커출자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펀드로, 기술혁신과 신기술 기반 시장진출 등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여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기술 초격차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형 민간펀드'이다.

금번 제3기에는 R&D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6,2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4,950억원 등 합계 1조1,15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출자를 약속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산업성장펀드'로 개명하고 확대된 자금 규모에 부합하게끔 그 역할과 위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R&D 활동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왔던 펀드의 투자 목적을 M.AX,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등 주요 산업정책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또한, 은행 자금 외에도 수요기업 공동 출자와 민간 매칭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전체 펀드 규모를 대형화하고 펀드를 산업생태계 주체간 연대·협력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산업성장펀드의 상징적인 1호 자펀드로는 「M.AX 산업대 전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M.AX 혁신펀드는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R&D 전담은행의 앵커출자 1,0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 매칭 등을 거쳐 최대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6월중 운용사 모집을 위한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M.AX 혁신펀드 이후로는 5극3특 지역산업 활력펀드, 업종별 생태계펀드 등을 순차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험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보증·융자: R&D 혁신기업 우대금융 향후 3년간 7,000억원 공급

이날 펀드 조성 협약과 함께 R&D 혁신기업 대상 우대 패키지금융 공급을 위한 유관기관간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다.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은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하게 완료하고 사업화 유망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보험과 저리대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산업성장펀드 출자와 별도로 합계 470억원을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고, 두 정책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 및 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 100%)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보증을 받은 기업은 협약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 하나은행 →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 무역보험공사에 100억원 출연(합 200억원)
- 중소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에 170억원, 무역보험공사에 100억원 출연(합 270억원)

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은 ①기술보증기금의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 보증'과 ②무역보험공사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무역금융' 등 2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먼저 ①'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 보증'은 R&D 과제 단위로 유망성을 평가하고, 기술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②'R&D 혁신기업 수출입 무역금융'은 산업부 R&D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제작자금·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두 프로그램은 유관기관간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을 거쳐 7월중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상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산업계·금융권과의 간담회를 통한 산업+금융+기술 시너지 창출방안 논의

협약식 이후 이어진 2부 산업금융 전략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협약식에 참여한 금융·정책보증기관, R&D 지원기관 외에 기업들과 벤처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생산적 금융'의 역할, 대한민국 산업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의 발전방향을 토론하였다.

기업들은 펀드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기업공개 준비 등 성장 단계에 핵심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와 함께 규제완화, 인력양성, 후속R&D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투자사들은 최근 자본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성장 단계에 있는 비상장기업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위험을 분담하고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이 단순한 차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융권, 산업계, 정부가 한 방향

으로 뜻을 모아 기업의 성장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위험과 성과를 더불어 공유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언급하고,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AI와 제조업의 진정한 융합, 지역경제 동반성장 등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성큼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금융기관과 R&D 지원기관도 산업정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530)
		담당자	서기관	조은형 (044-203-4531)



□ 행사내용

- (목적) 제3기 산업성장펀드('26-'28) 출범, 혁신기업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공급 관련 투자전략 및 발전방향 논의
- (일시/장소) '26.5.18.(월) 14:00~15:50,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 (주요 참석자) 장관, 은행(하나·IBK기업), 한국성장금융, 정책보증기관(기보·무보), 벤처투자사, 기업, R&D전문기관(KEIT·KIAT) 등 20여명
- (행사구성) 업무협약식(총 2회) 및 산업금융 전략회의(간담회)
 - (협약식) ① 제3기 산업성장펀드 출자(1조1,150억) 업무협약
 ② 은행 특별출연 기반 보증·대출공급(약 7,000억원) 업무협약
 - (간담회) '26년 산업성장펀드 조성계획 등 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산업금융 발전방안 논의

* 주요 메시지(안): ① 역대 최대 규모 전담은행 출자 기반, 산업성장펀드 출범
 ② 양극화를 벗어나, 산업생태계가 함께 커나가는 성장에 투자
 ③ 연내 1호 'MAX 펀드' 5,000억원 조성 선포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부대 행사	09:30~12:00	150'	· 산업부 R&D 우수수행기업 투자유치 경연대회(K-Shark Tank)	기업, 은행, VC, R&D기관
1부 (협약식) 공개	14:00~14:03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KEIT)
	14:03~14:20	17'	① 산업성장펀드 출자 협약식 ('26~'28, 1조1,150억원)	장관, 은행, 모펀드운용사, R&D기관
			②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협약식 ('26~'28, 7,000억원 보증·대출 공급)	장관, 은행, 보증기관, R&D기관
	14:20~14:30	10'	· 장내 정리	
2부 (간담회)	14:30~14:40	10'	· 모두발언/개회사 공개	장관
	14:40~14:45	5'	· '26년 산업금융 지원방안 발표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장)
	14:45~15:50	65'	· 산업금융 지원 전략회의	참석자
	15:50		· 폐 회	

‘26-’28년 산업성장펀드 조성 업무협약

산업통상부,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R&D 전담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이하 ‘운용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은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26-’28년 산업성장펀드」 조성 및 성과 창출에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1. ‘산업통상부’는 R&D 전담은행, 운용사, 전담기관과의 협력으로 금번에 조성되는 산업성장펀드가 국내 산업생태계의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대한 협력과 산업·기술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2. ‘R&D 전담은행’은 ‘26-’28년 산업성장펀드에 합계 1조 1,150억 원(‘26년 3,600억원)을 출자하고, 피투자기업에 은행권 기업금융 지원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3. ‘운용사’는 산업성장펀드 모펀드를 설정·운용하고, 제조 AI 전환, 지역 산업 성장, 주력산업 재도약,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우수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에 적절한 자금이 투자·관리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전담기관’은 기술혁신 기업의 정부 R&D 수행, 투자수요 발굴 등을 지원하고 ‘운용사’에 R&D 수행성과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5.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6년 5월 18일

산업통상부
장관 김 정 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대표이사 허 성 무

(주)하나은행
은행장 이 호 성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장 민 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리 서 용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 윤 종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업무협약

산업통상부,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이하 'R&D 전담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보증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은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원활한 가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1. '산업통상부'는 R&D 전담은행, 보증기관, 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번에 신설되는 산업 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이 우수기업 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 'R&D 전담은행'은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우대보증 채원 마련을 지원하고, 보증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업금융 우대상품을 운영하여 R&D 성과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 2-1. '(주)하나은행'은 '26-'28년간 기술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각각 100억원을 출연한다.
 - 2-2. '중소기업은행'은 '26-'28년간 기술보증기금에 17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100억원을 각각 출연한다.
3. '보증기관'은 혁신 성장성이 우수한 산업 R&D 성과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26-'28년간 합계 약 7,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기술보증 용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 '전담기관'은 기술혁신 기업의 정부 R&D 수행, 투자수요 발굴 및 우대금융 프로그램 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고 전담은행 및 보증기관에 R&D 수행성과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5.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6년 5월 18일

산업통상부
장관 김 정 관

(주)하나은행
은행장 이 호 성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장 민 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 종 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 영 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리 서 용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 윤 중
